비우고 나니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일본건축 탐방을 다녀와서

Now that I cleared my mind, I feel refilled again

김향희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by Kim, Hyang-hui, KIRA

본 기행문은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인 필자가 수상자들을 인솔하여 해외건축탐방을 다녀온 뒤 건축 기행문을 게재한 것이다.

길에 올랐다.

여행길… 어떤 길에서고 내겐 늘 목적이 함께하는 길이였다.

그러나 이번 여행길은 목적의 부재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하고 가볍게 길을 나서고 싶음이 간절했다.

진행하던 업무의 시달림과 회의 및 강의 등으로 필자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의 성격이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건축물 탐방 형식의 여행인지라 조금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금은 나를 비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길을 나섰다.

여명이 시작되기 전 사는 곳 보령에서 출발하여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 보니 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솔해 주실 여행사 관계자 그리고 수상자들, 또 같이 심사를 했고 이번 여행의 일정도 함께 해 주시는 유대근 교수님까지 필자를 제외한 모두가 모인 상태다.

미안함 마음에 시계를 보니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건만 역시나 달라도 다른 학생들이구나 싶은 것이 기특하고 대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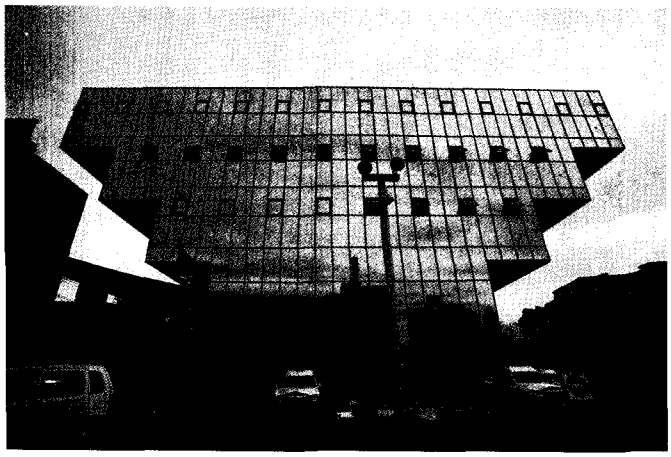
둘러보니 지난 심사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조금은 익숙해진 얼굴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온다.

심사를 하는 내내 많은 응모작들이 도시에 놓인 역사성 및 지역성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까지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으로 펼쳐 놓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무한세계로의 여행을 맘껏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 났고 내 언제 피곤했더냐 싶은 것이 슬슬 여행에 발동이 걸리며, 근질거리는 몸과 함께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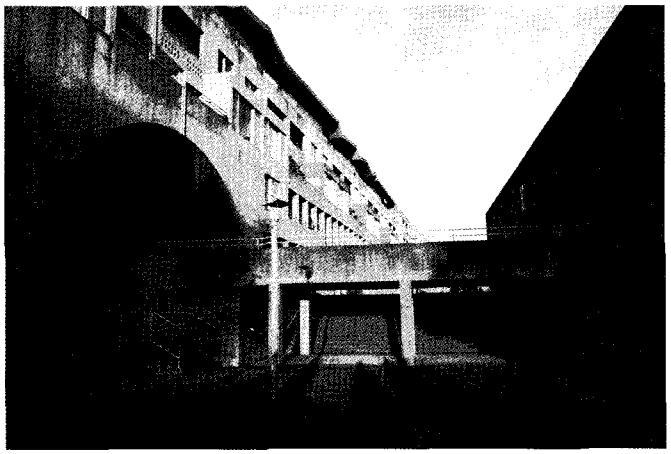
불안전한 기류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흔들거리던 비행은 공포감을 주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니 안개를 동반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힘든 여행의 서막이 아니길… 하며 이미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오르며 뒷좌석으로 가다가는 멈칫! 다시 돌아와 앞쪽의 자리에 잡으며 피식 웃는다.

왠지 아이들만의 소통 공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구마모토 북경찰서 외관



구마모토 시영 신치단지

어찌 생각하면 내 이런 생각이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해서 보이지 않는 선을 조심스레 지워버리는 관계의 모색을 이번 여행에서 해 봄이 어떨까 하며 낯게 웃어본다.

답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논의는 되어 있었으나 급박하게 잡아진 일정으로 협회 관계자와 여행사측에서는 적잖은 노고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의 짜임은 매우 좋았다.

첫 탐방지인 NEXUS-WORLD KASHI에 도착하니 조금 전 이슬비는 제법 굵어졌고, 바람 역시 심해져 들고 있던 우산이 무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이 학생들의 종종거림으로 이어졌으며, 마치 여러 개의 악기가 연주되는 듯 바람소리 빗소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대지의 나눔과 공간의 앉힘을 조심스레 풀어나간 흔적이며 재미난 디테일,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림을 주는 공간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그래서였을까?

스산한 날씨의 우울 mode도 이런 우리의 열정을 저지하지는 못함인지 첫날을 빼고는 답사 내내 제법 훌륭한 하늘빛을 만날 수 있었다.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참여했던 학생의 기행문에서 충분히 적혀질 것이니 필자는 참여자들의 동선을 따라 뒤에서 바라보듯 서술하려 한다.

현지 여건상 일부 일정이 바뀌어 진행되기도 했고, 이미 가 보았던 곳도 또한 있었으나 전혀 색다른 경험처럼 다가왔다. 바뀐 도시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움직임 주는 사람들의 다름도 이유였겠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은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선과 질문 등으로 또 다른 시선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깝게 보던 시선의 위치를 조금만 뒤로 물렸을 뿐인데 보이는 건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여정의 시작에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일본도 외국인데 전혀 외국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던 학생은 일본의 건축적 특징을 찾아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한다. 또한 필자로 하여금 미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혹감을 주는 학생도 있었으며, 무엇이든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해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학생도 여럿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일정 이외의 장소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법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 영화 '장군의 아들' 에서 나온 전차도 타보고,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문화의 경험까지도….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던 관계는 서로의 속내도 이야기하고 때론 짖꿎은 장난기까지 발동시킨다. 서두에서 소통의 영역하며 운운했던 선이 희미해지는 순간이다. 억지스럽게 지우려 하지 않았어도 어느새 흐려져 버린 선이라는 명제를 명명했던 필자의 정의가 민망하다.

마지막 탐방지는 안도다다오의 현립 장식 고분관이다. 첫날 그 어둡고 칙칙했던 하늘빛은 오간데 없고 눈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빛이 우리를 반긴다. 다양한 시선을 유도하듯 고분을 감싸고 놓여진 경사진 동선을 따라 올라가 보니 저 멀리 산과 산등성이를 감아 안은 예쁜 구름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마치 내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앞이 아니며 더 멀리 보아야 함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 서서 길을 간다.
억지스럽게 비우지 않았음에도 이미 비워진 내가
다시 무언가를 채우려 떠나왔던 곳으로…

어쩌면 필자의 몫이 아니었을 이번 답사는 이각표(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의 양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기에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심사의 주관과 답사를 추진해 주신 협회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건축 미래가 너무도 밝고 기대가 됨을 직접 느끼게 해준 금번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의 수상자들과 더불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